

# 칼 구스타프 융(C. G. Jung)과 존 비비(John Beebe)의 성격유형론을 통해 본 이제마(李濟馬)의 사상체질(四象體質)별 성격유형의 분화와 구조

이수진, 구병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 Differentiation and Structure of Psychological Types in Sasang Constitutions Described by Lee, Je Ma: Perspectives from Type Theories of C. G. Jung and John Beebe

Su-Jin Rhi, Byung-Soo Koo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Received: August 25, 2020

Revised: November 25, 2020

Accepted: December 30, 2020

Correspondence to  
Byung-Soo Koo  
Department of Oriental  
Neuropsychiatry, Dongguk University  
Ilsan Medical Center, 27 Dongguk-ro,  
Ilsandong-gu, Goyang, Korea.  
Tel: +82-31-961-9140  
Fax: +82-31-961-9009  
E-mail: koobs1009@gmail.com

**Objectives:**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Sasang constitutions include all 8 attitude-function types, forming a complete paradigm from the perspective of Jungian psychological type theory.

**Methods:** Analysis of the meanings of psychological attitudes and function of each Sasang constitution was performed, comparing them with the typological theories of C.G.Jung and John Beebe, both of whom are eminent minds in Jungian typology.

**Results and Conclusions:** (1) Each Sasang constitution had all 8 psychological attitude-function combinations, which are diversely differentiated by type within their conscious and unconscious psyches. This is likely because attitudes and functions that develop in the conscious mind build up compensating attitudes and functions in the unconscious. (2) It seems that extroversion and introversion coexist within every Sasang constitution as psychological descriptions reported by Lee, Je ma state. The superior and inferior functions are disposed in the order of organ size in Sasang constitutions, but dominance of extroversion or introversion as defined by Jung's concepts of attitude does not seem to be determined by constitution.

**Key Words:** Psychological types, 8 Attitude-function types, The whol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Compensation, Differentiation and structure, Sasang constitutions.

## I. 서론

서양의 성격심리학의 토대가 되는 임상적 이론이 칼 구스타프 융(C. G. Jung)의 성격유형론이라면 한의학(韓醫學)에서 성격론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마의 사상의학(四象醫學)이라고 할 수 있다.

융의 성격이론은 정신적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과 기능에 따른 분류를 조합하여 8가지의 태도-기능 유형을 말하고 있다<sup>1)</sup>. 이에 비해 이제마의 사상체질(四象體質)은 융이 말하는 유형 중에 주로 4가지의 태도-기능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다<sup>2)</sup>. 즉 융의 성격유형 분류를 통해 이제마의 성격유형 분류를 바라보면 내용상 절반에 해당하는 성격유형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융의 성격유형론에서 말하는 태도와 기능의 개념은 보다 상세한 이해와 적용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또한 융 분석가 존 비비(John Beebe)는 의식 뿐 아니라 무의식을 포함한 성격 구조와 분화를 설명하여 융의 성격론을 발전시켰다. 융의 이론과 같이 그는 의식에 발달된 성격의 특징은 무의식에 상보적(相補的)인 태도-기능을 발달시킨다고 말한다<sup>3)</sup>. 그리하여 의식에서 분화된 4가지의 태도-기능과 무의식에 상보적으로 분화된 4가지 태도-기능을 통합하여 8성격기능론(8 functional model)을 정립하였다<sup>3)</sup>.

현재까지 국내에서 존 비비의 8성격기능론과 사상체질의 성격론이 비교 고찰된 연구는 없으나 융의 성격유형론과 사상의학의 비교연구로는 김 등<sup>4)</sup>의 융의 마음의 구조, 유형론과 이제마의 지인론, 사상인과의 비교고찰에 대한 연구와 박 등<sup>5)</sup>의 이제마의 사상체질과 융의 심리학적 유형간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이 있으며 김<sup>6)</sup>의 사상의학에서 바라본 몸과 마음에 대한 연구 및 박<sup>7)</sup>의 융의 심리학적 유형과 사상체질 및 성격특성의 관계에 대한 논문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융의 성격유형론에서 말하는 태도와 기능의 의미를 상세히 파악하여 사상인의 성격 특성에 적용하고 분석함으로써 사상인의 성격 유형이 융의 8가지 성격유형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존 비비의 8성격기능론을 적용하여 사상인의 의식과 무의식 전체 영역에서의 성격 구조와 분화의 양상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융의 성격유형론

융의 성격유형론이 출발되는 기준은 인간 정신 에너지의 태도(attitude)와 기능(function)에 관한 개념이다.

#### 1) 태도 유형(attitude-types)

융이 말하는 태도란 리비도(libido) 즉, 정신적 에너지(psychic energy)의 방향성과 관계성을 말하는데, 이는 외부 대상(object)이나 외적 현상을 향하고 관련되는가, 자신으로서의 주체(subject) 나 내적 현상을 향하고 관련되는가 하는 것이다<sup>1,8)</sup>. 외적, 객관적 대상을 향해 정신적 에너지가 향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외향성(extraversion) 과 내적, 주관적 주체를 향하는 경향성이 강한 내향성(introversion)의 두 가지 태도로 유형을 구분하였다<sup>1)</sup>. 외향성인 경우 객관적인 조건과 요구에 직접 관계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며 실제로 살아간다면 내향성의 경우는 객관적 대상이나 객관적 자료가 아닌 주관적인 요소들이 삶의 주요한 결정적 인자가 된다<sup>1,8)</sup>.

융은 이 심리적 태도의 구분이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개체 종의 적응성에 기반한다고 보았다. 증식율이 높은 종들은 낮은 강도의 방어와 개별 유기체의 짧은 생존기간을 보이는 바, 그 개체 활동은 보다 외부로 활발하게 표현된다. 증식률이 낮은 종들은 다양한 방어체계를 갖추게 되며 그 개체 활동성은 훨씬 보호 중심적으로 내부를 향한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개체 종들의 적응성의 특성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경향성을 드러낸다고 융은 이해하였다. 그래서 낮은 강도의 방어와 증식률이 높은 종은 보다 외부로 에너지를 표현하는 외향성을 갖고, 높은 강도의 방어와 낮은 증식률을 갖는 종은 보다 내부를 향하는 에너지를 갖는 내향성이 되는 것이다<sup>1)</sup>.

더 나아가 융은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이어지는 축을 중심으로 놓고 서로 균형을 이루려 하는 정신적 에너지의 보상적인 측면에 주목하였다<sup>1)</sup>. 그래서 의식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고 우월한 외향성이나 내향성의 태도를 가지되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의식의 태도를 보상하는 각각의 내향성과 외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의식에서의 태도가 편향되고 과해지면 의식에서 소외되고 억압된 에너지가 무의식에 누적되면서 그 태도 또한 강력한 편향

성을 보이게 된다<sup>8)</sup>. 예를 들어 내향성인 사람이 현실에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직업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려는 성향이 커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극단성을 보이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 외부 상황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들고 강박적인 태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에 골몰하는 상태를 보이는 경우, 의식의 편향적 내향성과 이를 과보상하는 무의식의 외향성의 에너지 흐름을 볼 수 있다.

의식과 무의식이 온전하게 서로를 반영하고 보완하는, 정신의 전체성이 융 분석심리학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는 존 비비가 융의 개념 중에 그림자(shadow)를 통합하여 무의식을 포괄하는 성격유형론을 더 발전시키는 것에 이론적, 임상적 주요 근거가 되었다<sup>3,9)</sup>.

## 2) 기능 유형(function-types)

개인별로 다양한 정도와 양상으로 선택적인 분화(differentiation)를 이루며 발달한 기능적 특성으로서, 사고(thinking), 감정(feeling), 감각(sensation), 직관(intuition)을 말한다<sup>1)</sup>.

합리적 기능이자 판단(judgment) 기능에 속하는 것이 사고와 감정이다<sup>1)</sup>. 사고는 논리적 과정에 의해 비개인적인 발견을 이루는 것이다. 감정은 이해와 평가를 통해 개인적 주관적 가치를 사물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sup>1,10)</sup>. 사고형은 개인의 삶이 주로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고 知的으로 간주되는 요인들에 의해 모든 중요한 행위들이 이루어진다. 감정형은 통용되는 기준에 의해서나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현상에 대해 좋고 받아들일 만하거나 아름다우며 반대로 나쁘거나 거부할 만하거나 추하다는 식의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삶에서 주된 요소이자 행동의 동기로 작용한다<sup>1)</sup>.

비합리적 기능이자 인식(perception) 기능에 속하는 것은 감각과 직관이다<sup>1)</sup>. 감각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오감이라는 익숙한 과정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하며, 직관은 외부로부터 감지된 것에 더하여 무의식의 영역에서 발전시킨 생각이나 연상을 통해 간접적 방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sup>1,10)</sup>. 감각형은 오감을 통해 감지하고 인식하는 기능이 삶에서 주된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현상이나 사물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데서 오는 감각이 발달하거나 일차적으로 받아들인 구체적 감각을 주관적 인식요소를 통해 재경험하고 파악한다. 직관형은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는 기능이 우월한데, 외적 현상이나 개인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과 가능성 및 의미를

인식하고 영감을 발전시켜 행위의 주된 원천으로 삼게 된다<sup>1)</sup>.

융은 네 기능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하고자 “사고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고...감정은 그것이 동의할만하거나 받아들일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해주며...감각은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직관은 정확히 설명하기 힘들지만 결국 직감 같은 것으로서 결국 무의식을 통한 인식이다.”라고 하였다<sup>11)</sup>.

타고난 성격유형의 왜곡이 가져오는 정신적, 신체적 병리에 대해 연구한 캐서린 벤지거(Katherine Benziger)는 자연적인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의 특성의 발달은 유형별로 타고난 우월성과 경향성을 가지며 이러한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건강과 자존감을 유지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준다<sup>12)</sup>. 또한 타고난 태도와 기능이 현실에 제대로 적응을 이루지 못할 경우와 성격장애의 양상 간에 비교가 이루어지기도 한다<sup>13)</sup>.

## 3) 태도(attitude)-기능(function) 조합과 서열

융은 우월한(superior) 태도-기능의 조합으로 8가지의 성격 유형을 설명하였다. 즉 우월한 태도-기능의 특성이 외향적 사고, 내향적 사고, 외향적 감정, 내향적 감정, 외향적 감각, 내향적 감각, 외향적 직관, 내향적 직관의 8가지로 나뉘는 것이다<sup>1)</sup>.

이 8가지 태도-기능 유형의 특징에 대해 존 비비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외향적 사고형은 모든 이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진리와 같은 있는 정의(definition)를 구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내향적 사고형은 통용되는 의견과 상관없이 자신의 내적 진실과 합치되는 개념을 발견하고자 한다. 외향적 감정형은 타인들의 감정과 연결되기를 원하며 내향적 감정형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외향적 감각형은 현실적으로 직접적 관련성을 갖고 흥미를 유발하는 감각적 경험들, 즉 질감, 냄새, 시야, 소리와 맛의 경험을 통한 세계를 발견한다. 내향적 감각형은 질서를 찾고 체계화하는 경험 및 몸의 내적감각과 그 편안함을 찾는다. 외향적 직관형은 외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가능성,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감지하며 내향적 직관형은 무의식적 영역에서의 큰 구도를 잘 인식하여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도 개인을 넘어서는 인식을 창조한다<sup>3)</sup>.

융이 말하는 성격 분류는 의식(consciousness)의 태도와

기능에 기반하고 있다<sup>1)</sup>. 그리고 융은 이 우월 기능을 도와주는 보조적(auxiliary) 기능이 있으며 이는 우월 기능의 판단(judgment) 혹은 인식(perception)에 치우친 특성을 보완해 주고 우월 기능이 보다 분화된 형태로 표현될 수 있게 돕는다고 보았다<sup>1,8)</sup>. 예를 들어 내향적 사고가 주된 태도-기능인 경우 사고의 판단적 특성을 보완하는 인식 영역의 기능, 즉 감각과 직관 기능 중 하나가 보조 기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월 기능과 상반되는 특징의 열등(inferior) 기능이 있다. 융은 우월 기능이 사고나 감각이면 열등 기능은 감정이나 직관이 된다고 보았는데, 합리적 판단 기능인 사고와 감정끼리, 그리고 비합리적 인식 기능인 감각과 직관끼리 서로 연관되는 기능이므로 연관되는 기능 중 하나가 우월 기능이 되면 나머지가 열등 기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sup>1,8)</sup>. 우월 기능과 열등 기능의 축과 보조 기능과 삼차 기능의 축을 판단 기능과 인식 기능 별로 나누는 것에 대해 회의적 견해도 있으나 MBTI 및 융의 성격유형론 분화는 임상적으로 이러한 배경에서 검증되며 발전하였다<sup>14,15)</sup>.

융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성격검사(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로 발전시킨 캐서린 브릭스(Katharine Briggs)와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Isabel Briggs Myers)는 융의 이론을 보다 분화시켰다. 융의 8가지 유형에 보조 기능을 더하여 분류함으로써 16가지의 성격유형을 나누었다<sup>10)</sup>. 그리고 우월한 태도-기능 조합에 더해 보조(auxiliary) 기능, 삼차(tertiary) 기능과 열등(inferior) 기능을 설명하고 가장 우세하고 자연스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능부터 서열화하였다. 그래서 융의 8가지 성격 유형을 각 유형별로 우월, 보조, 삼차, 열등 태도-기능의 순으로 의식적인 영역 내에서 관계성을 정립할 수 있게 해주었다<sup>10,16)</sup>.

예로서, 내향적 감정형은 각 성격 부분의 서열 구조가 Fig. 1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로 표현될 수 있다. 위아래의 축은 우월 기능-열등 기능이며, 좌우의 축은 보조 기능-삼차 기능이다. 제 1우월 태도-기능이 내향적 감정일 때, 제 4열등 태도-기능은 우월 태도의 반대인 외향성과, 판단 기능인 사고와 감정 중 나머지 하나인 사고가 결합되어 외향적 사고가 된다. 제 2보조 태도-기능의 경우, 태도는 우월 태도와 반대이므로 외향성이나 기능은 인식 기능인 감각과 직관 중 어느 것이나 배열될 수 있다. Fig. 1의 그림에서 왼쪽은 제 2보조 태도-기능이 외향적 감각인 경우로서 제 3 태도-기능은 내향적 직관이다. 오른쪽의 그림은 제 2보조 태도-기능이 외향적 직관인 경우이고, 제 3 태도-기능은 내향적 감각이다.

#### 4) 무의식 영역에서의 태도(attitude)-기능(function)

융이 설명하고 있는 성격 유형은 의식(consciousness)에서의 기능과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우월한 태도-기능의 조합은 외향적 사고, 내향적 사고, 외향적 감정, 내향적 감정, 외향적 감각, 내향적 감각, 외향적 직관, 내향적 직관의 8가지가 가능하고 이것이 융의 성격 유형분류이다<sup>1)</sup>. 존 비비는 융의 유형 분류를 무의식 영역까지 보완하여 구체화하였다. 그는 무의식내의 성격적 분화에 대한 질문을 심화하였는데, 만약 의식에서 발달한 네 가지 태도-기능만을 고려하고 다룬다면 의식의 그림자로서 무의식에서 분화된 태도와 기능들은 계속 다루지 못한 채로 남게 되어 의식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3)</sup>.

의식에서 발달되고 선호되는 특정 태도-기능은 그 의식적 에너지에 상응하여 상대적으로 억압되거나 반대되는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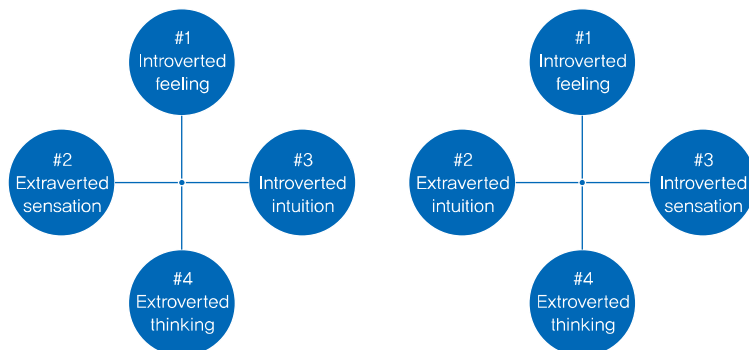


Fig. 1. Configurations of types in consciousness of the introverted feeling type.

의식적 영향력을 형성한다<sup>8)</sup>. 예로서 외향적 직관이 의식에서 발달되고 우세해지면 무의식적으로는 내향성과 직관의 요소를 억압하거나 선호되지 않는 상태로 두게 됨으로써 원시적이고 충동적, 혹은 방어적 특성이 강화된다. 의식에서의 외향성은 그 발달과 치우침의 정도에 따라 무의식화 되는 영역에 내향성의 에너지를 억압하거나 원시성을 강화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 정신이 에너지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다<sup>3,17,18)</sup>.

그래서 융은 우월한 기능만이 강화되는 것은 정신의 전체성에 해를 끼치며, 내적 분열을 초래한다고 쓰고 있으며<sup>1)</sup>, 이는 어느 성격 유형의 경우에도 자아를 일방적으로 강화하게 되어 인격의 통합 과정인 개인화 과정(individuation)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보았다<sup>19,20)</sup>.

존 비비는 더 나아가 외향적 직관형의 사람이라고 해도 분명 내향적 직관의 요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8가지의 태도-기능 조합으로서의 성격 요소들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을 임상적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성격 구조와 배열을 설명하였다<sup>3)</sup>. 의식적 영역에 제 1, 2, 3, 4 기능이 자리 잡고, 이에 각각 상응하는 기능들이 무의식적 영역에 제 5, 6, 7, 8 기능으로서 배열되어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의식적인 1, 2, 3, 4 기능과 무의식적 5, 6, 7, 8 기능은 한 기능을 놓고 각각 반대의 태도를 갖는다<sup>3,16)</sup>.

여기에서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의식과 무의식이 단순한 경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특정 정신 기능이나 태도가 더 자연스럽게 유능하게 사용이 되고 쉽게 의식되는지, 아니면 역으로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거나 돌연히 강력하게 사용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로 더 무의식적인 기능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sup>8,9)</sup>. 우월한 기능인 제 1 기능 방향으로 갈수록 보다 자연스럽게 쉽게 의식화되며 반대로 제 8기능을 향할수록 보다 의식화되지 않은 채로 심리적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sup>3,16)</sup>.

다르게 말하면, 의식적이며 보다 발달된 기능일수록, 즉 제 1기능에 가까워질수록 자아 동조적(ego-syntonic) 특성을 갖는데, 이는 자아(ego)가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고 믿고 있는 내용들과 통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보다 무의식적인 기능일수록, 즉 5, 6, 7, 8 기능으로 갈수록 자아(ego)의 세계에서 보면 상충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아 이질적(ego-dystonic) 특성을 지닌다. 의식의 자아가 생각하고 믿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개념과 경험에 반하는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3,16)</sup>.

내향적 직관형이면서 외향적 사고가 보조 기능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의 의식적, 무의식적 영역 전체의 통합적 성격 구조는 Fig.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왼쪽의 그림은 의식에서의 자아 동조적(ego-syntonic) 영역이고 오른쪽 그림은 무의식, 그림자(shadow), 즉 자아 이질적(ego-dystonic) 영역에서의 구조이다<sup>3,16)</sup>. 존 비비는 보조 기능의 태도는 우월 기능의 태도와 반대라고 보았다. 삼차 기능의 태도 또한 보조 기능의 태도와 반대가 된다<sup>3,21)</sup>. 그래서 여기서도 내향적 직관형의 보조 기능의 태도는 외향성이며, 삼차 기능의 태도는 내향성이다. 의식에서의 제 1우월 태도-기능이 내향성 직관이므로 제 4열등 태도-기능은 외향성 감각이 된다. 제 2보조 태도-기능은 외향적 사고와 외향적 감정이 가능하나 Fig. 2는 외향적 사고인 경우이고 제 3태도-기능은 내향적 감정이 된다. 무의식에서의 제 5~8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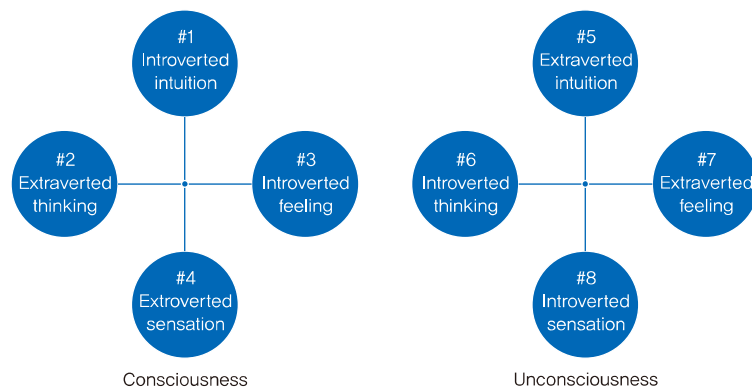


Fig. 2. Type configuration i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of the introverted intuitive type with the auxiliary extraverted thinking.

도-기능은 의식의 제 1~4 태도-기능들과 각각 상응하되 태도는 반대이고 같은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제 5 태도-기능은 외향성 직관, 제 6 태도-기능은 내향성 사고, 제 7 태도-기능은 외향성 감정, 제 8 태도-기능은 내향성 감각이 된다.

## 2. 사상인(四象人)의 심리특성과 용의 성격유형 비교

### 1) 사상인(四象人)의 태도-기능

#### (1) 태양인(太陽人)

태양인(太陽人)은 천시(天時)를 들으며(태양지이 찰어천시 太陽之耳 察於天時)<sup>22)</sup> 인륜(人倫)과 당여(黨與)에 능하지 못하다 하였다(태양지비 불능광박어인륜...태양지간 불능아립어당여 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sup>22)</sup>. 또한 심리특성으로서 방종(放縱)하며 사람을 만남에 해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태양지심 방종지과야 교인유해지 노심최중야 太陽之心 放縱之過也 交人有害之 怒心最重也)<sup>23)</sup>. 또한 태양인(太陽人)의 성기(性氣)는 앞으로 나아가려하되 물러나려하지 않는다고 표현된다(태양지성기 항욕진이불욕퇴 太陽之性氣 恒欲進而前不欲退)<sup>22)</sup>.

이를 용의 태도-기능 관점으로 보면 천시(天時)를 들으며 인륜(人倫)과 당여(黨與)에 능하지 못하며 방종(放縱)하다는 것은 심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다<sup>1)</sup>. 즉 기존 가치관의 영향을 덜 받으며 가능성의 영역을 잘 감지하고, 익숙한 질서와 예외에 구애되지 않는 특성이 큰 것으로, 이는 용이 의미하는 바, 보이지 않는 가능성과 상황의 잠재성을 읽는 기능인 직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sup>1,8,10)</sup>.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고 후퇴하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적(陽的) 속성이다. 이러한 양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개인의 외부 세계로 향하는가 내면을 향하는가의 문제가 용이 말하는 심리적 태도인데<sup>1,8)</sup>, 이제마가 설명하는 일차적 맥락으로는 외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sup>2,24,25)</sup>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 능하나 친숙한 사람과의 관계, 당여(黨與)에서 약하다는 것이나 사람을 만남에 해로움이 있게 한다는 것은 태양인이 잘 기능하는 외향성의 측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장기간 안정된 외향성을 유지하는 것에 실패하거나 내향성의 측면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8)</sup>.

#### (2) 소양인(少陽人)

소양인(少陽人)은 세회(世會)를 보며(소양지목 찰어세회 少陽之目 察於世會)<sup>22)</sup> 지방(地方)과 거처(居處)에 능하지 못

하다(소양지구 불능광박어지방...소양지신 불능항정어거처 少陽之口 不能廣博於地方...少陽之腎 不能恒定於居處)<sup>22)</sup>. 심리특성은 스스로 사사로움이 지나칠 수 있고 일을 크게 꾸미는 것으로 나타난다(소양지심 자사지과야 대역사지 애심최중야 少陽之心 自私之過也 大與事之 哀心最重也)<sup>23)</sup>. 소양인(少陽人)의 성기(性氣)는 항상 거동(舉動)하려고 하지만 그만 두려고 하지 않는다(소양지성기 항욕거이불욕조 少陽之性氣 恒欲舉而不欲措)<sup>22)</sup>.

세회(世會)를 보고 읽는다는 것과 스스로 사사로움에 사로잡히기 쉬워 큰 일을 꾸민다는 것은 상황을 읽되 자기가 옳다는 가치판단과 충동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용이 말하는 감정의 기능으로서 사물이나 상황에 개인적, 주관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이 주된 삶의 양상과 동기를 이룬다는 것이다<sup>1,8,10)</sup>. 그리고 거동(舉動)하려고 하되 그만 두려고 하지 않는 속성은 양적(陽的) 속성이되 용의 성격론 관점에서는 개인의 외부적, 객관적 세계로의 에너지 흐름인지 내부적 주관적 세계로의 에너지 흐름인지가 심리적 태도를 결정짓는다<sup>1,8)</sup>. 일차적으로는 외향성의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지만<sup>2,24,25)</sup> 크게 일을 꾸미되 슬픔이 크고 일을 맡은 슬픔을 중히 여긴다는 내용은 외향적 태도가 주는 정서적 무게감 또는 외향적 태도의 실패 및 보상적으로 내면을 향하는 강한 심적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8,10,16)</sup>.

#### (3) 태음인(太陰人)

태음인(太陰人)은 인륜(人倫)을 맡으며(태음지비 찰어인륜 太陰之鼻 察於人倫)<sup>22)</sup> 천시(天時)와 사무(事務)에 능하지 못하고(태음지이 불능광박어천시...태음지폐 불능민달어사무 太陰之耳 不能廣博於天時...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sup>22)</sup> 심리특성으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크고 좋은 집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태음지심 물욕지과야 오가거지 낙심최중야 太陰之心 物慾之過也 好家居之 樂心最重也)<sup>23)</sup>. 또한 태음인(太陰人)의 성기(性氣)는 항상 고요하려 하지만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하였다(태음지성기 항욕정이불욕동 太陰之性氣 恒欲靜而不欲動)<sup>22)</sup>.

이는 인간이 현실에서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의 파악에 능하고 감각적 만족을 주는 요소들에 기호가 발달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오감(五感)을 통해 사물과 현상을 감지하는 것이 삶의 주된 동기로 작용하는 감각 기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sup>1,8,10)</sup>. 성기(性氣)가 고요하려 하지만 움직

이러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음적(陰的) 속성이고 일차적으로 내향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sup>2,24,25</sup> 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재물과 좋은 집으로 구체화되는 외적 세계의 감각적 만족을 증시하는 것은 외향성으로서의 감각이라 할 수 있다<sup>1,8,10</sup>.

(4) 소음인(少陰人)

소음인(少陰人)은 지방(地方)을 맞보며(소음지구 찰어지방 少陰之口 察於地方)<sup>22</sup> 세회(世會)와 교우(交遇)에 능하지 못하고(소음지목 불능광박어세회..소음지비 불능용통어교우 少陰之目 不能廣博於世會...少陰之脾 不能勇統於交遇)<sup>22</sup> 심리특성으로는 안일(安逸)하며 무리를 지어 이익이 생김을 기뻐한다고 하였다(소음지심 안일지과야 당인유이지 희심 최중야 少陰之心 安逸之過也 黨人有利之 喜心最重也)<sup>23</sup>. 소음인(少陰人)의 성기(性氣)는 들어앉으려 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소음지성기 항욕처이불욕출 少陰之性氣 恒欲處而不欲出)<sup>22</sup>.

지방(地方)을 맞보며 안일(安逸)함이 지나치고 이익의 생김을 기뻐한다는 것은 소음인(少陰人)이 안정성 속에서 사리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지략에 뛰어나고 이를 사용하여 기쁨을 누리는 특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용이 말하는 기능 중 논리적으로 생각을 형성하는 과정과 결과가 핵심적 요소인 사고 기능을 의미한다<sup>1,8,10</sup>. 그리고 들어앉으려 하되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음적(陰的) 속성을 말하고 내향성을 기본적으로 의미할 수 있으나<sup>2,24,25</sup> 무리를 짓는대거나 남에게서 이득 보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정신적 에너지가 외부 대상과의 관계나 그 외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심리적 만족을 향한다는 것으로서 외향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sup>1,8,10</sup>.

이상에서 추론해 본 바에 따라 사상인 별로 용의 성격 4 기능을 연결하면 Fig. 3과 같다. 태양-직관, 소양-감정, 태음-감각, 소음-사고이다.

2) 성정(性情)과 의식 및 무의식의 개념

이제마가 말하는 성(性)은 이목구비(耳目鼻口)가 청시후미(聽視嗅味)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정(情)은 폐비간신(肺脾肝腎)이 애노희락(哀怒喜樂)하는 능력을 의미한다<sup>26</sup>.

이러한 성정(性情)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성(性)은 이목비구(耳目鼻口)를 통해 외부의 정보를 접할 때 느끼는 심(心)의 방향성이며,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정(情)은 인사(人事)를 행할 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 자체라는 해석이다<sup>26</sup>.

둘째, 성(性)과 정(情)은 모두 인간의 감정을 가리키는데,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성(性)은 공적(公的) 감정이나 도덕(道德) 감정이라고 볼 수 있고 정(情)은 사적(私的) 감정 혹은 일반(一般) 감정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다<sup>27</sup>.

셋째로,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성(性)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지능력으로서 감각, 인식, 판단의 경향성을 포함하며 인간의 잠재의식의 성향 또한 의미하고,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정(情)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며 표층의식의 성향을 함께 의미한다고 보는 박<sup>28</sup>의 해석이 있다.

이상을 조합하여 이해하면 이제마가 말하는 性은 보다 중심이나 깊이에서부터 반응되어 나오는 인지 및 감정 능력으로서 용의 개념상 보다 원형적이고 무의식적인 영역과 접촉되어 표현되는 심리적 기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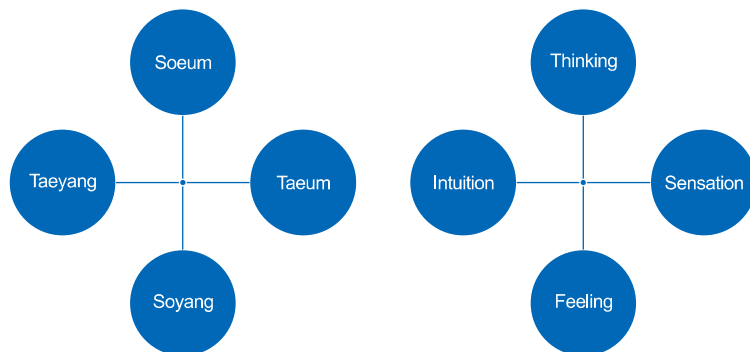


Fig. 3. Jung's 4 psychological functions corresponding to Sasang structure.

있다<sup>29-32</sup>).

정(情)의 개념은 보다 의식의 층에서 반응하는 개인적, 표층적, 직접적 감정 능력으로서 용의 개념으로는 구체적, 의식적 영역과 접촉되어 발현되는 심리적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sup>29-32</sup>).

또한 《擴充論》을 보면, 性의 작용으로 인해 이목비구(耳目鼻口)가 능(能), 불능(不能)할 때 해당되는 우월 및 열등 기관(器官)과 이에 상응하는 천시(天時), 세회(世會), 인륜(人倫), 지방(地方)의 영역이 있고, 이에 비해 정(情)의 작용으로 폐비간신(肺脾肝腎)이 능(能), 불능(不能)할 때 우월 및 열등 장기(臟器)와 상응하는 사무(事務), 교우(交遇), 당여(黨與), 거처(居處)의 영역이 있는데 그 내용상 주된 역할 장부(臟腑)의 순서가 성(性)의 작용으로 인한 경우와 다르다<sup>22</sup>). 이를 용과 존 비비의 성격론을 적용해 추론해 보면 의식 뿐 아니라 무의식 영역에서도 다른 분화의 양상으로 작용하는 성격적 기능이 있고 그 분화의 질서나 순서가 의식에서와는 다르다는 맥락을 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sup>1,3,16</sup>).

### 3) 사상인(四象人)별 의식 및 무의식의 태도-기능 조합

사상인(四象人) 별로 가장 발달된 심리적 기능은 태양인(太陽人), 소양인(少陽人), 태음인(太陰人), 소음인(少陰人)에게 각각 직관, 감정, 감각, 사고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상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양인(陽人)은 일차적으로는 외향형이고 음인(陰人)은 내향형인 것으로 여겨지나 용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각각의 일차적인 외향적, 내향적 태도가 실패하기도 하고, 반대되는 특징으로서의 내향성과 외향성이 각 체질 내에 혼재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性)과 정(情)의 작용에 따라 의식 뿐 아니라 무의식에서도 심리적 기능들이 의식과는 다른 질서로 움직이고 발달한다는 것을 이상에서 추론하였다.

여기에 존 비비의 의식과 무의식 전체의 성격 유형 분화에 대해 연구한 바를 적용하면 각 체질별로 의식과 무의식 전체에 걸친 성격적 태도-기능의 분화를 구조화할 수 있다<sup>3,16</sup>). 각 체질별로 성격적, 심리적 기능으로서의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 발달의 정도에 따라 의식에 1, 2, 3, 4 기능으로 배열되고 무의식에는 상응하는 기능들이 5, 6, 7, 8 기능의 순서로 작용한다. 또한 의식-무의식 간에 상호적으로 외향성과 내향성이 보완하는 관계를 이루며 공존하되 그 역동이 질서를 이룬다<sup>3,8,16</sup>).

그리고 각 체질마다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한 묘사가 혼재하는 것을 존 비비의 이론을 통해 비교하여 추론해 본다면 모든 체질에서 의식에서의 우월한 태도로서 외향성과 내향성 모두가 발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3,16,21</sup>). 태양인(太陽人)의 경우 의식의 우월 태도-기능은 반드시 외향적 직관형이고 내향적 직관은 무의식에 상보적으로만 형성되는 태도-기능인가 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하고 후퇴하려하지 않는다<sup>22</sup>)는 양적(陽的)인 속성과 양인(陽人)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되어져 온 경향성이 적지 않으나<sup>2,24,25</sup>), 용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태양인(太陽人)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 능하나 친숙한 사람과의 관계, 당여(黨與)에서 약하다<sup>22</sup>)는 것과 사람을 만남에 해로움이 있게 한다<sup>23</sup>)는 것은 장기간 안정된 외향성을 유지하는 것의 실패나 내향성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8</sup>). 그리하여 태양인(太陽人)의 의식과 무의식 전체에 외향성과 내향성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의식에서 우월 태도-기능이 외향적 직관 뿐 아니라 내향적 직관으로도 발현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sup>3,16,21</sup>). 이와 같이 소양인(少陽人)의 경우도 크게 일을 꾸미되 슬픔이 크다는 것에서<sup>23</sup>) 외향성에 수반되는 강한 정서적 충격이나 내향성의 요소가 보이므로 의식의 우월 태도-기능으로 내향적 감정이 발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태음인(太陰人)의 경우 재물이나 좋은 집<sup>23</sup>)과 같은 외부 세계의 감각적 만족에 심리적 에너지가 향하는 외향적 감각이, 소음인(少陰人)의 경우 무리를 짓고 이익이 생김을 기뻐하는 비<sup>23</sup>) 외부 대상과의 관계성에서 이익을 생각하고 기뻐하여 심리적 에너지를 향하게 하는 외향적 사고가 우월 태도-기능으로서 발현가능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sup>3,6,34,35</sup>).

#### (1) 태양인(太陽人)

태양인(太陽人)이 천시(天時)를 들으며 인륜(人倫)과 당여(黨與)에 능(能)하지 못하며<sup>22</sup>) 방종(放縱)하다<sup>23</sup>)는 것을 기존 가치관의 영향을 덜 받으며 가능성의 영역을 잘 감지하되 익숙한 질서와 예의에 구애되지 않는 특성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용의 성격적 기능인 직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을 위에서 논의하였다<sup>1,8,10</sup>). 그리고 태양인(太陽人)이 일차적으로는 외향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sup>2,24,25</sup>),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 능하나 친숙한 사람과의 관계, 당여(黨與)에서 약하다<sup>22</sup>)는 것과 사람을 만남에 해로움이 있게 한다<sup>23</sup>)는 것은 장기간 안정된 외향성을 유지하는 것의 실패나 내향성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음은<sup>1,8</sup>)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태양인(太陽人)의 경우, 음과 존 비비가 설명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성격 분화 내용을 고려하고 의식과 무의식이 상보(相補)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구조를 추론할 수 있다. 의식에서의 일차적인 우월 태도-기능을 외향성-직관으로 보되, 상보(相補)적인 내향성 직관의 태도-기능이 태양인(太陽人)의 무의식의 영역에 상응하는 관계로 존재하고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sup>1,3,16</sup>. 또한 태양인 중에 의식의 우월 태도-기능이 내향성 직관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무의식에서 상보하는 태도-기능으로 외향성 직관이 작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sup>3,6,34,35</sup>.

용의 유형론에서는 우월 기능과 열등 기능은 정해지지만 보조기능과 삼차기능은 순서가 바뀔 수 있다. 그에 비해 사상인(四象人)은 장부(臟腑)의 크기와 서열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심리 기능 또한 보조 기능과 삼차 기능이 정해지게 된다. 태양인(太陽人)은 장부(臟腑) 크기의 서열이 폐(肺), 비(脾), 신(腎), 간(肝)이므로 직관, 감정, 생각, 감각의 기능 순으로 배치된다. Fig. 4는 의식의 우월 태도가 외향성인 태양인(太陽人)의 성격 내 구조이다.

의식에서의 제 1우월 태도-기능이 외향성 직관이므로 제 4열등 태도-기능은 내향성 감각이다. 제 2보조 태도-기능은 태양인의 경우 제 2장부가 비(脾)로 정해져 있으므로 감정 기능에 해당되어 내향성 감정이 되고, 제 3 태도-기능은 외향성 사고가 된다. 무의식에서의 제 5~8 태도-기능은 의식의 제 1~4 태도-기능과 상응하되 각각의 태도는 반대이고 기능은 같다. 그래서 제 5 태도-기능은 내향성 직관, 제 6 태도-기능은 외향성 감정, 제 7 태도-기능은 내향성 사고, 제 8 태도-기능은 외향성 감각, 제 9 태도-기능은 내향성 감각이다.

제 8 태도-기능은 외향성 감각이 된다.

(2) 소양인(少陽人)

소양인(少陽人)이 세회(世會)를 보고 읽으며<sup>22</sup> 스스로 사사로움에 사로잡히기 쉬워 큰 일을 꾸민다<sup>23</sup>는 것은 상황을 읽되 자기가 옳다는 가치판단과 외부 상황을 일으키려는 충동이 큰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용이 말하는 감정의 기능임을 분석하였다<sup>1,8,10</sup>. 또한 거동하려고 하되 그만 두려고 하지 않는<sup>22</sup> 속성은 양적(陽的)인 속성이되 이러한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성이 개인의 외부적 객관적 세계를 향한 것인지 내부적 주관적 세계를 향한 것인지가 용이 말하는 태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sup>1,8</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양인이 일차적으로는 외향성의 태도를 갖고 있으나<sup>2,24,25</sup>, 크게 일을 꾸미되 슬픔이 크고 일을 맡은 슬픔을 중히 여긴다<sup>23</sup>는 것은 외향적 태도로 인한 강력한 정서적 반응이나 충격 및 외향성의 실패나 내향성을 의미할 수 있다<sup>1,8</sup>. 즉 외향성과 상보(相補)적인 내향성이 무의식에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내향성이 의식의 우월 태도인 소양인도 있다고 할 수 있다<sup>3,6,34,35</sup>. 태양인(太陽人)의 경우와 같이 성(性)/정(情)-무의식/의식의 영역을 함께 고려하여 성격의 구조를 배치한다면 Fig. 5와 같다. 소양인(少陽人)의 장부(臟腑) 서열이 비(脾), 폐(肺), 간(肝), 신(腎)이므로 기능의 서열은 감정, 직관, 감각, 사고라 할 수 있다.

Fig. 5는 의식의 우월 태도가 외향성인 소양인(少陽人)의 성격 내 구조이다.

의식에서의 제 1우월 태도-기능이 외향성 감정이므로 제 4열등 태도-기능은 내향성 사고이다. 제 2보조 태도-기능은 소양인의 경우 제 2장부가 폐(肺)로 정해져 있으므로 직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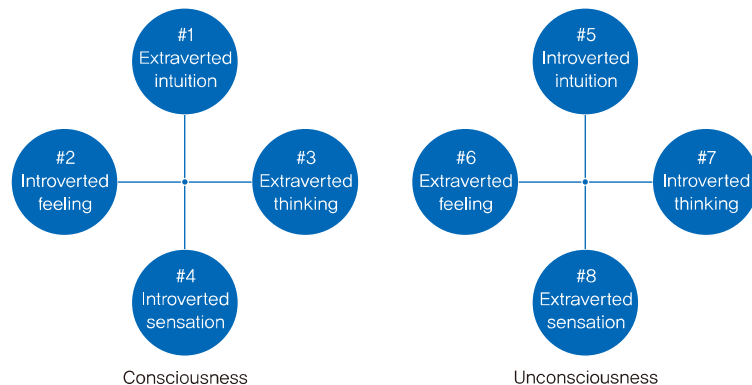


Fig. 4. Type configuration i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of Taeyangin with the superior extrav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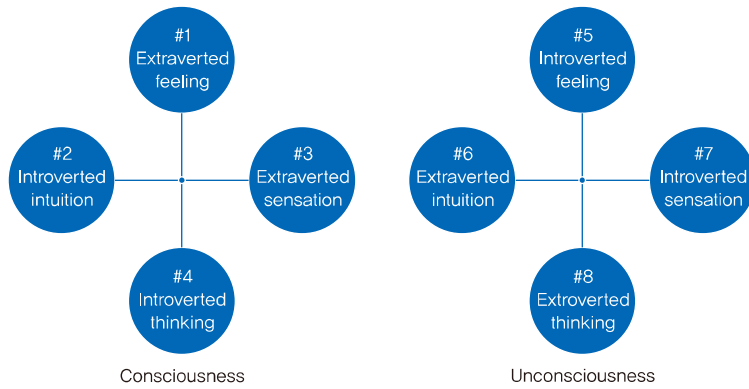


Fig. 5. Type configuration i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of Soyangin with the superior extrav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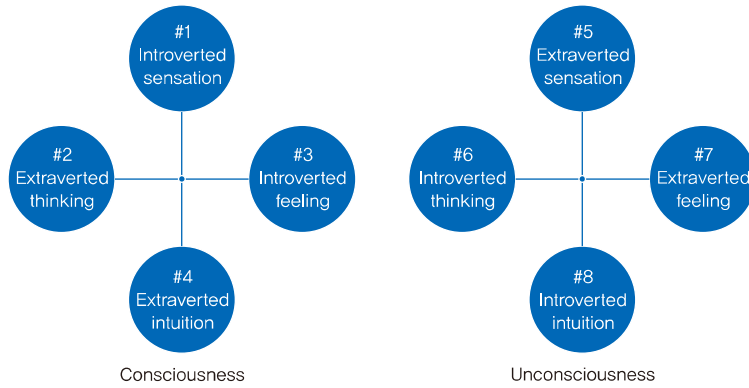


Fig. 6. Type configuration i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of Taeumin with the superior introversion.

해당되어 내향성 직관, 제 3 태도-기능은 외향성 감각이 된다. 무의식에서의 제 5~8 태도-기능은 의식의 제 1~4 태도-기능과 상응하되 각각의 태도는 반대이고 기능은 같다. 그래서 제 5 태도-기능은 내향성 감정, 제 6 태도-기능은 외향성 직관, 제 7 태도-기능은 내향성 감각, 제 8 태도-기능은 외향성 사고가 된다.

(3) 태음인(太陰人)

태음인(太陰人)이 인륜(人倫)을 맡으며 천시(天時)와 사무(事務)에 능하지 못하고<sup>22)</sup>,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크고 좋은 집에 머무르기를 좋아한다<sup>23)</sup>고 한 설명을 현실에서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의 파악에 능하고 감각적 만족을 주는 요소들에 기호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해석하고 이는 용의 감각 기능에 해당됨을 살펴보았다<sup>1,8,10)</sup>. 성기(性氣)가 고요하려 하지만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sup>22)</sup>는 것은 음적(陰的)인 속성이고

기본적으로 내향성을 뜻하지만<sup>2,24,25)</sup> 오히려 재물과 좋은 집으로 구체화되는 외적 세계의 감각적 만족을 중시하는 것은 용의 태도 개념으로 보면 외향성으로 볼 수 있다<sup>1,8,10)</sup>. 존비비의 성격기능론 관점을 적용하였을 때, 태음인(太陰人)에게 내향성과 상보(相補)적인 외향성이 의식-무의식 전체에 함께 존재하며, 외향성이 의식의 우월 태도인 경우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sup>3,6,34,35)</sup>. 그러므로 태음인(太陰人)의 내향, 외향성과 의식, 무의식을 함께 고려하여 성격구조를 배치하면 Fig. 6과 같다. 간(肝), 신(腎), 비(脾), 폐(肺)의 장부(臟腑) 서열에 따라 기능의 서열은 감각, 사고, 감정, 직관이다.

Fig. 6은 의식의 우월 태도가 내향성인 태음인(太陰人)의 성격 내 구조이다.

의식에서의 제 1우월 태도-기능이 내향성 감각이므로 제 4열등 태도-기능은 외향성 직관이다. 제 2보조 태도-기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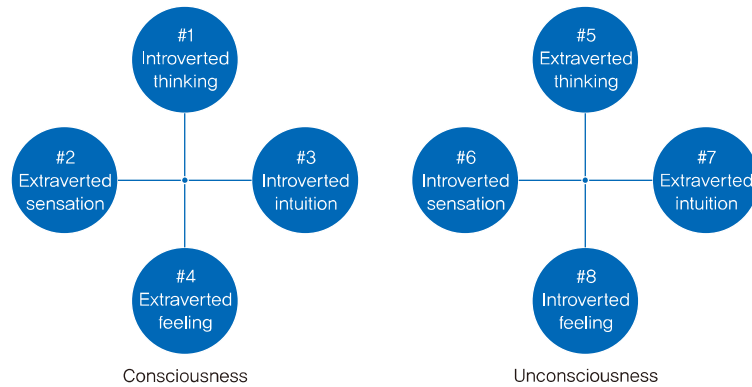


Fig. 7. Type configuration i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of Soeumin with the superior introversion.

태음인의 경우 제 2장부가 신(腎)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고에 해당되어 외향성 사고, 제 3 태도-기능은 내향성 감정이 된다. 무의식에서의 제 5-8 태도-기능은 의식의 제 1-4 태도-기능과 상응하되 각각의 태도는 반대이고 기능은 같다. 그래서 제 5 태도-기능은 외향성 감각, 제 6 태도-기능은 내향성 사고, 제 7 태도-기능은 외향성 감정, 제 8 태도-기능은 내향성 직관이 된다.

#### (4) 소음인(少陰人)

소음인(少陰人)이 지방(地方)을 맞보며<sup>22)</sup> 안일(安逸)함이 지나치고 이익의 생김을 기뻐한다<sup>23)</sup>는 것은 소음인(少陰人)이 안정성 속에서 사리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 지략에 뛰어나고 이를 사용하여 기쁨을 누리는 특성의 표현으로 보였다. 이는 용의 사고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sup>1,8,10)</sup> 분석하였다. 그리고 들어앉으려 하되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sup>22)</sup>는 것은 음적(陰的)인 속성을 말하고 내향성을 상징하지만<sup>2,24,25)</sup>, 무리를 짓는대거나 남에게서 이득 보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용의 개념을 적용하면 정신적 에너지가 외부 대상과의 관계나 그 외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족을 향한다는 의미로서 외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1,8,10)</sup>. 그러므로 소음인(少陰人)의 의식-무의식 내에 내향성과 외향성의 공존을 상정할 수 있으며 외향성이 의식의 우월 태도인 경우도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sup>3,6,34,35)</sup>. 소음인(少陰人) 의식-무의식 전체의 성격 내 태도-기능 분화는 Fig. 7과 같다. 소음인(少陰人)은 신(腎), 간(肝), 폐(肺), 비(脾)의 장부(臟腑) 서열이므로 사고, 감각, 직관, 감정의 기능 서열을 따른다.

Fig. 7은 의식의 우월 태도가 내향성인 소음인(少陰人)의 성격 내 구조이다.

의식에서의 제 1우월 태도-기능이 내향성 사고이므로 제 4열등 태도-기능은 외향성 감정이다. 제 2보조 태도-기능은 소음인의 경우 제 2장부가 간(肝)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감각에 해당되어 외향성 감각, 제 3 태도-기능은 내향성 직관이 된다. 무의식에서의 제 5~8 태도-기능은 의식의 제 1~4 태도-기능과 상응하되 각각의 태도는 반대이고 기능은 같다. 그래서 제 5 태도-기능은 외향성 사고, 제 6 태도-기능은 내향성 감각, 제 7 태도-기능은 외향성 직관, 제 8 태도-기능은 내향성 감정이 된다.

### III. 결론 및 고찰

용의 분석심리학에서는 각 유형별로 정신의 분화된 태도와 기능들이 다른 정도로 발달을 이루되, 보다 의식에서 쉽고 유능하게 잘 사용되는 태도와 기능이 있는 반면에 무의식적으로 에너지가 억압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태도와 기능들은 의식에 이르지 못하고 무의식에 소외된 힘으로서나 의식의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또는 의식의 치우침을 보완하려는 힘을 갖는다고 설명한다<sup>1,3,8)</sup>.

그러므로 의식에서 발달된 모든 태도-기능들이 무의식에 상보(相補)하는 에너지로서의 태도-기능을 형성하는 바, 존비비의 주장과 같이 모든 사상인(四象人)이 각각 의식-무의식을 통합하여 용이 말하는 전체 8가지 태도-기능들을 다양한 분화의 수준에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이상에서 살펴보았다. 즉, 우월 태도-기능 외의 다른 모든 태도-기능들도 다양한 분화의 정도로 각 체질의 성격 구조 내에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또한 사상인(四象人)의 성격에 대한 이제마의 설명에는 용이 말하는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한 개념이 각 체질(體質) 내에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각 체질(體質)별로 주된 기능들은 장부(臟腑)의 대소(大小)와 함께 정해지지만 용의 개념으로서의 내향성이나 외향성의 우세는 체질(體質)별로 특정하게 지정된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추론하였다.

용의 성격유형론이 그 패러다임 안에 인간 성격의 전체 특성을 최대한 담았고 그런 이유로 현대 성격심리학에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본다면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 사상인(四象人)의 성격론이 인간 현상을 다루는 전체적 온전성과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까지 사상인의 성격 유형은 용의 성격유형으로 볼 때 외향적 직관형,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각형, 내향적 사고형의 네 가지 유형을 주로 표현한다고 설명되어 왔으나, 그렇다면 용이 말하는 내향적 직관형, 내향적 감정형, 외향적 감각형, 외향적 사고형은 과연 사상체질에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서 본 논문은 출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의 성격론과 존 비비의 8성격기능론을 통해 사상인의 성격론을 고찰하였을 때, 사상인의 성격유형은 각 체질별로 외향성과 내향성을 다 포괄함으로써 사상인이 우월 태도-기능으로서의 전체 8가지 유형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또한 각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통해 8가지 성격 태도-기능이 모두 분화되어 있다는 존 비비의 임상적 연구를 적용함으로써 사상인의 각 체질은 의식-무의식 전체를 통해 8가지 태도-기능을 모두 분화된 상태로 갖고 있을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한의 정신의학의 성격론인 사상인의 성격론을 임상적 적용할 때 갖게 되는 고정적 관념 및 진단 양상의 문제나, 체질설문진단의 결과가 환자가 실제로 보이는 성격적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 데도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기 힘든 영역에 대해 보다 확장된 이해와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시도하였다. 사상체질의 성격진단이 심리적 태도와 기능들 각각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그 요소들이 의식-무의식속에서 이루는 전체 역동까지 분석되어 이루어진다면, 환자에게서 의식적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성격의 요소에 의해 의사의 판단이 장악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임상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론간 비교연구를 임상적으로 더 구체

화된 데이터에 적용하여 검증하고 이를 다시 이론으로 보강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용의 성격유형론에서 발전한 MBTI 검사상 사상체질별 성격유형이 체계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점에 대해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를 적용해 분석해 본다면 임상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상인이 8가지의 성격유형을 모두 나타낸다는 고찰을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이제마가 사상의학을 정립할 때에 경험하고 체계화한 4유형과 이후 권도원 박사에 의해 분화 정립된 8유형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8체질의 성격적 태도와 기능이 사상체질의 성격적 태도 및 기능과 비교하여 어떻게 분화되었고 또 사상체질에서 단순 분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특징적 양상을 보이는지를 고찰하고, 8체질별 성격적 요소들의 전체적 역동을 분석하는 것이 그러한 과제의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8체질의학에서의 음양(陰陽)과, 사상인을 세분화하는 다른 기준인 표리(表裏), 한열(寒熱)의 특성을 용의 성격유형론에서의 외향성, 내향성이라는 특성과 비교하여 임상적 접목 가능성을 연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역으로 다시 사상체질의 성격유형의 분석에 적용한다면 본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한 내용의 한계를 임상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리라 사료된다.

## REFERENCES

1. Jung, C. G. Psychological types. (H. G. Baynes & R. F. C. Hull, Tra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109, 111-2, 556-61, 563-7, 577, 595 597 604-5, 612, 628, 633, 638, 650, 655-6. (para.)
2. Kang YH. Sasangsimhak. Seoul. Daeseong Publishing Company. 2008:414-30.
3. Beebe, J. Energies and patterns in psychological type: The reservoir of consciousness. New York, NY. Routledge. 2017:20, 22, 24-27, 31, 33-46. 122.
4. Kim IT, Ko BH, Song IB. The Comparison Study of the Structure of Mind and Psychologic Type of C.G.Jung to Ji-In-Lon and Sasang Constitution of Lee Je Ma.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6;8(2):95-116.
5. Park HG, Lee JH. A Study on the Associations between Lee Je-Ma Sasang Constitutions and C. G. Jung's Psychological Types.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8;10(2):41-50.
6. Kim DR. The Perspective of Body and Mind from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Respect to Psychological

- Type Theory by C.G. Jung. 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2008;16(2):143-9.
7. Park HI. Study of the Relations on the Jung's Psychological Types, Sasang Constitutions, and personality Traits (Docto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00.
  8. von Franz, M. L. & Hillman, J. Lectures on Jung's typology. Woodstack, CT. Spring Publications. 1998:9-71.
  9. Beebe, J. Integrity of depth. College Station, TX. Texas A&M University Press. 1992:33-69.
  10. Myers, I. S. & Myers, P. Gifts differing: Understanding personality type. Mountain View,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95:1-24.
  11. Jung, C. G. C. G. Jung Speaking. (W. McGuire & R. F. C Hull. Ed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306.
  12. Benziger, K. Falsification of types. San Bernardino, CA.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3:8-11, 14-16, 24-34.
  13. Ekstrom, S.R. Jung's Typology and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A Comparison of Two Systems of Classification.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1988;33:338-41.
  14. Metzner, R. & Burney, C. & Mahlberg, A. Toward a Reformulation of the Typology of Functions.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1981;26:33-7.
  15. Mattoon, Mary Ann. & Davis, Melinda. The Gray-Wheelwrights Jungian Type Survey: Development and history.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1995;40:214-6.
  16. Hunziker, M. Depth typology: The guide map to becoming who we are. Monee, IL. Write Way. 2016:55-63, 73-111, 132-50.
  17. Sharp, D. Personality types: Jung's model of typology. Toronto. Inner City Books. 1987:25-33.
  18. Spoto, A. Jung's typology in perspective. Boston, MA. Chiron Publication. 1995:75-107.
  19. Wheelwright, J.B. St. George and the Dandelion. San Francisco, CA. C. G. Jung Institute of San Francisco. 1982: 75-6.
  20. Myers, Steve. Myers-Briggs Typology and Jungian Individuation.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2016;61:291-3.
  21. Beebe, John. Can There Be a Science of the Symbolic?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2004;49:182-7.
  22. Lee JM. (translated by Donguihakyonguso). Donguisuse-bowon. Seoul. Yegang Publishing Company. 2003.
  23. Lee JM. (translated by Park SS). Donguisusebowon-sasangchobongwon. Seoul. Jibmundang. 2003:81.
  24. Kim JJ, Park SS. A Psychotherapy f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6;18(2):115-22.
  25. Lee HS, Park SS. An Approach of How to Use Psychotherapy f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7;19(1):128-31.
  26. Sasang Constitutional Department of National College of Korean Medicine. The Revised and Enlarged Sasang Medicine. Seoul. Jibmundang. 2004:78.
  27. Choi DW. Donguisusebowon Translation. Seoul. Kyung-inmunhwa. 2012:140.
  28. Park SS. Control and Moderation of Natural Human Emotions through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2003;26(2):108-9.
  29. Edinger, E. F. Ego and Archetype. Boulder, CO. Shambhala Publications. 1972:3-36.
  30. Neumann, E. The Origins and History of Consciousnes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4:266-86.
  31. Kim JH, Song JM. A Study on the Theory of JangBu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4;16(1):27-9.
  32. Hwang MW, Lee SK, Koh BH, Song IB. A Study on Inclination of Mind and Nature & Emo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4;16(2):21-6.
  33. Kim KS, Lee SK, Lee EJ, Koh BH, Song IB. A Study for Sasang Structure about 『Dongyi Suse Bowon』 and 『Gyukchigo』.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4; 16(2):34-6.
  34. Jeung YJ, Park SS. A Study on How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s and Diseases in 『Donguisusebowon』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Theory of Eight Constitution.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1;23(4):448, 454-6.
  35. Rho SY. Study on Philosophy and Medical Meaning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Master's thesis). Semyung University. 2006:29-38.